

## 갈라디아서 3:11의 ἐκ πίστεως의 번역에 관한 연구

김충연\*

### 1. 들어가는 말

번역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찾아서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맞추는 작업이다. 그러나 다른 시대의 언어로 기록된 문서의 필사본을 오늘의 또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그 시대’와 ‘문화’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변천’ 및 ‘변형’하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하려는 문서가 다름 아닌 성서라고 한다면 이런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인 어려움 외에도 성서가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해 그 번역의 중요성은 더더욱 크다.

고대 언어 특별히 성서를 번역함에 있어서 일차적 도구는 사전(辭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인 도움만으로 의미가 불확실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차적인 자료는 바로 그 단어나 문장에 대한 저자만의 ‘특별한 용례와 습관’이다. 그래서 번역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 외에 저자만의 의도와 습관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에 저자의 다른 문헌들을 참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주제는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개신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 ὅτι ὁ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갈 3:11b)에 대한 번역이다. 이 본문은 단지 갈라디아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로마서 1:17, 그리고 본문에 약간의 차이는(μου의 위치) 있지만 히브리서 10:28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하여 한국의 많은 번역본(『개역개정』, 『새번역』, 『개역한글』, 『현대인』)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번역이 최선의 번역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법적인 그리고 역사/문헌적인 비교작업을 통하여 어떠한 번역이 ‘신학적’으로 가장 바울에 가까운지에 대하여 제안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원문의 문법 형식을 번역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형식일치의 번역이론’에 따를 것이나,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현대 한국어로 옮기도록 하겠다.

본 연구를 위한 기본 텍스트로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NTG<sup>27</sup>로 할 것이며, 한국어 번역 성서는 『개역개정』, 『공동개정』, 『개역한글』, 『현대인』 그리고 『새번역』 등과 외국어 번역본(독일어: EIN, ELB, LUO; 영어: KJV, NAS)들을 비교/참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본 논문 안에서 인용되는 한글 번역본은 필자의 개인적인 번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역개정』으로 하겠다.

## 2. 몸 말

먼저 3:11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ὅτι δὲ ἐν νόμῳ οὐδεὶς δικαιοῦται παρὰ τῷ θεῷ δῆλον, ὅτι ὁ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11상반절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들은 그 의미(“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를 전달하는 데 큰 차이가 없지만, 11하반절에 대한 번역은 조금 차이가 있다. 즉 『개역개정』, 『새번역』, 『현대인』, 그리고 『개역한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번역』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두 번역의 큰 차이는 전치사구 ἐκ πίστεως를 ‘부사구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형용사구로 해석할 것인가’이다.

사실 이 본문은 구약성서 하박국 2:4하반(“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וְיִשְׁתָּחַד בְּאֵמוּנָתוֹ וְיִשְׁתָּחַד בְּאֵמוּנָתוֹ)의 인용이다. 그리고 칠십인역은 이것을 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ώς μου ζήσεται로 번역하고 있다. 즉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인 ‘그의’에 해당되는 *이*이 생략되고 1인칭 단수 소유격 *μου*가 추가된다. 이것은 2격(*μου*)을 *πίστεώς*의 목적격으로 볼 것인가, 주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번역이 달라진다.<sup>1)</sup> 일반적으로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의인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가 되고 주격으로 보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아마도 여기서 다시 인칭대명사 *μου*를 생략한 채 자신의 신학에 맞게 인용하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가 알고 있던 칠십인역 본문은 인칭대

1) Blass; Debrunner;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138.

명사가 없는 본문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μου를 의도적으로 생략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인칭대명사가 없는 본문을 인용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본 논문의 연구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본 논문에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본문을 바울은(이곳에서 그리고 다른 문헌들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는 문법적 접근이며, 둘째는 신학적 접근이다.

## 2.1. 문법적 의미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될 문법적 주제는 전치사구 ἐκ πίστεως의 의미 분석과 문법적인 적용 문제이다. 앞서 본 것처럼, 이것을 독립적인 ‘부사구’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앞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전치사구는 신약성서에서 총 21번 사용되는데, 이중 바울이 19번(로마서 11번, 갈라디아서 8번)<sup>3)</sup>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두 번은 히브리서(10:38)와 야고보서(2:24)에서 각각 한 번씩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 전치사구의 표현은 시기적으로나 문헌적으로 볼 때 가히 바울적인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W. 바우어는 바울이 사용한 19번의 용례 중 7번의 용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sup>4)</sup>: 즉, (1) 근거(Grund): 갈 2:16; 3:24; 롬 3:30, (2) 전제(Voraussetzung, Quelle): 롬 14:23, 출처(aus): 갈 3:7, 9, (3) 기점(von): 롬 1:17b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바우어의 이러한 분류를 근거하여 나머지 용례를 정리하면, 로마서 4:16; 9:30, 32; 10:6; 14:23; 갈라디아서 3:7, 9, 12, 22, 24; 5:5는 ‘출처’에 그리고 갈 2:16; 3:8은 ‘전제’와 ‘출처’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11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 의미상으로 볼 때 ‘기점’(von)을 제외한 ‘전제’와 ‘출처’ 모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이 전치사구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즉, 독립적인 ‘부사구’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로 보아야

2) J. Becker, *Der Brief an die Galater*, NTD 8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36.

3) 롬 1:17(2회); 3:26, 30; 4:16; 5:1; 9:30, 32; 10:6; 14:23(2회); 갈 2:16; 3:7, 8, 9, 11, 12, 24; 5:5

4)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471-476.

하는가? 왜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지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문장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장구조를 갖고 있다. 이 문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문장을 이끄는 ὅτι, 그리고 이 부문장의 주어인 ὁ δίκαιος, 그리고 동사인 ζήσεται, 그리고 전치사구인 ἐκ πίστεως가 전부이다. 먼저, 전치사구를 제외한 채로 나머지 문장을 번역하면, ‘의인은 살 것이다(ὁ δίκαιος ζήσεται)’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전치사구를 포함하여 번역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이 전치사구를 어떻게 문법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지는 것이다.

첫째는 전치사구인 ἐκ πίστεως를 독립적으로 즉 부사구로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번역은 앞서 본 것처럼, 『공동번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어 성서가 채택하는 형식이며, 많은 외국어 성서 번역본들도 이 형식을 따라 번역하는데, 독일어권에서는 ELB, LUO 등이 있고, 영어권에서는 KJV, NAS 등이 있다.

문법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전치사 ἐκ는 2격 지배 전치사로서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출처나 근거를 의미하는 ‘~로부터’(장소/근원/물질)와 ‘~이래로’(시간) 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sup>5)</sup> 가끔 원인이나 동기의 의미로 ‘~에 의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외국어 번역본들도 이 경우 ‘~부터(aus, von)’, ‘~에 의하여(by)’로 옮기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원인’이나 ‘동기’의 의미이지 ‘도구’의 의미는 아니다. 이처럼 바우어는 이 전치사구를 어디에도 ‘도구’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멩게(H. Menge)도 마찬가지이다.<sup>6)</sup> 그러므로 ἐκ를 ‘도구’ 또는 ‘~을 가지고’의 의미로 번역하려는 제안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어 번역 ‘믿음으로’는 ‘~으로’라는 말이 갖는 특성상 독자들로 하여금 종종 ‘도구’로서의 의미로 전해지도록 한다. 그리하여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도구/매개체)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도록 한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본문의 의미를 물어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에 의하여’라는 표현도 한국어 특성상 한편으로는 ‘원인’이나 ‘동기’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구’나 ‘방법’로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낫겠다. 그러므로 만약, 첫 번째 문법적 가능성을 받아들여서 이 본문을 고려하여 번역한다면 ‘말미암아’라는 번역이 더 적절할 것이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나 이

5)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475.

6) H. Menge, *Langenscheidts Großwörterbuch Altgriechisch* (Berlin; München; Wien; Zürich; New York: Langenscheidt, 1997), 214.

러한 번역 역시 문법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칭의론에 근거하여 볼 때 적절하지 않는 번역이다. 이것은 나중에 문헌적 비교와 바울 신학의 비교를 통하여서 더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또 다른 문법적 가능성은 전치사구를 앞의 주어인 ὁ δίκαιος와 함께 연결하여 형용사구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럴 때 ὁ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의 번역은 의미상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이 된다. 이때 전치사 ἐκ는 ‘출처’나 ‘근거’ 또는 ‘원인’이나 ‘방법’ 모두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어 성서 번역본인 EIN는 aus(근거/출처)로 번역하고 있으나, 영어성서인 RSV와 한국어 번역인 『공동번역』은 각각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through’와 ‘~통하여’라고 옳기고 있다. 이러한 문법적 가능성 하에서 이 문장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진 사람은 살 것이다’(원인/전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은 살 것이다’(출처).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전치사구를 자주 형용사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4:16b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τῶ ἐκ πίστεως Ἀβραάμ,)”, 로마서 9:30 “믿음에서 난 의(δικαιοσύνην δὲ τὴν ἐκ πίστεως)”, 로마서 10: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ἡ δὲ 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οσύνη οὕτως λέγει)”, 로마서 14:23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ὁ οὐκ ἐκ πίστεως ἁμαρτία ἐστίν)”,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3:11을 제외하고도 갈라디아서 3:7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ὅτι οἱ ἐκ πίστεως)”, 갈라디아서 3:9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οἱ ἐκ πίστεως)” 등이다. 이처럼 바울은 이 전치사구를 두 가지 형태(부사구, 형용사구)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명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당연히 ‘형용사구’로 사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하는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거의 모든 한글 성서 번역본들이 앞서 ‘형용사구로 사용된’ 예들을 모두 형용사구로 번역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갈라디아서 3:11만큼은 부사구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sup>7)</sup>

아마도 이 전치사구를 부사구로 번역하려는 입장은, ‘형용사구’로의 번역이 오늘날의 문장 형태로 볼 때 불완전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ἐκ πίστεως를 형용사구로 해석하면, 이 문장은 ‘A(‘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B(‘살 것이다’)이다’의 문장 형태가 되고 B, 즉 술어에 해당되는 ‘살 것이다’만으로는 의미상 불완전하여 ‘보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번역본들이 전치사구를 형용사구로 해석하

7) 비교, R. N. Longenecker, *Galatians*, WBC 41 (Dallas, Texas: Word Books, 1990), 119.

는 것보다는 부사구로 사용하는 번역을 더 선호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유대적인 화법에서는 ‘살다’라는 동사는 보어 없이도 평서문에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종종 조건문과 함께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25 이하의 율법교사와 예수와의 대화를 보면, 거기서 예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고 물으시고 이에 율법교사가 ‘네 마음을 다하며... 사랑하라 하였나이다’(27절)라고 대답하자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ζῆσι)”라고 답하신다. 예수는 율법교사의 질문, 즉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하여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고 답하지 않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답하신다. 여기서도 ‘살다’라는 동사는 아무런 보충어의 도움 없이 즉 ‘어떻게’나 ‘어디에서’라는 보어 없이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법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8:2에서 여호와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열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ζήσεται) 그의 생명이 노략물을 얻을 같이 살리라”(칠십인역). 여기서도 ‘산다’는 동사 ζάω는 보어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산다’는 동사가 보어 없이 사용되는 곳은 창세기 19:20, 출애굽기 19:13; 33:20; 신명기 5:24; 예레미야 38:17, 20을 비롯해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9:18; 요한복음 11:25 등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동사 ζάω는 유대 화법에서, 특별히 미래형에서 자주 보어 없이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11하반 역시 충분히 보어 없이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번역 형태는 바울의 칭의론과도 일치한다.

## 2.2. 신학적 의미

지금까지는 문법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본문을 번역해 보려 시도했다면, 바른 번역을 위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바울 신학의 조명하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의 논의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본문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인의 삶)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칭의론)를 설명하려는 것인가? 만약, 첫 번째 ‘의인의 삶’에 관한 언급이라고 한다면, 문법적 접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

는 번역이 타당성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삶’이 아니라 ‘칭의론’에 관한 언급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부터 난 의인은 살 것이다’가 타당성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바울은 여기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인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것은 문맥상 맞지가 않는 것이다.<sup>8)</sup> 11상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즉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11하반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11하반절은 11상반절에 이어서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의로워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 답변은,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가 된다. 만약에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번역한다면, 갑작스럽게 등장한 그 ‘의인(ὁ δίκαιος)’은 도대체 어디서 출현하게 된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며, 이 문장은 그 의미상 ‘의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되고 만다. 그러나 참고로, 바울은 그의 서신 어디에서도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는 곳이 없다. 반면에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도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 1:17을 보면, 여기서도 역시 바울은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의 의’ 즉 ‘칭의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sup>9)</sup> 1:17상반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이라고 말하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는 ‘전부’임을 설명한다.<sup>10)</sup>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복음’인 것이다.<sup>11)</sup> 이러한 맥락에서 17하반절(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을 번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은 살 것이다’<sup>12)</sup>가 된

8) 갈라디아서 3장에 대한 더 자세한 신학적 논증은 권연경, “갈라디아서 3장 18절의 κεχάρισται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17 (2005:10), 25-26을 참고하라.

9)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EKK VI/I (Zürich; Einsiedeln; Köln; Benzig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6.

10) V. P. Althaus, *Der Brief an die Römer*, NTD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8), 15.

11) O. Michel, *Der Brief an die Römer*, KE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51.

12) 비) 박익수, 『바울의 서신들과 신학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97-298.;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EKK VI/I (Zürich; Einsiedeln; Köln; Benzig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76; J.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London:

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10:3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율법으로부터의 의’와 ‘믿음으로부터의 의’를 대조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도 전치사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사용된다. 5절을 보면,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라는 표현이 전치사구 τὴν ἐκ τοῦ νόμου와 명사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의 형태로 등장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Μωϋσῆς γὰρ γράφει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τὴν ἐκ τοῦ νόμου, ὅτι ὁ ποιήσας αὐτὰ ἄνθρωπος ζήσεται ἐν αὐτοῖς). 또한 6절에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바울은 전치사구의 형용사적 용법(한정적 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칭의론을 설명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ἡ δὲ 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οσύνη οὕτως λέγει). 즉 바울에 의하면 ‘의’는 ‘율법으로나’,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출처)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칭의론의 핵심이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11도 마찬가지로 이런 ‘칭의론’적인 문맥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sup>13)</sup> 바울은 3장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다시금 설명한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ἐξ ἀκοῆς πίστεως 즉, “듣고 믿음에서”(3:2-5)이다.<sup>14)</sup>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이 영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한다.<sup>15)</sup>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οἱ ἐκ πίστεως)’이 바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6-9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10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11상반절).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의로워지는 것이다’(11하반절).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의로워진 사람은 사는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16)</sup> 죄로 인한

Hendrickson Publishers, 1995), 174.

13) A. Lindemann, H. Conzelmann, *Arbeitsbuch zum NT* (Tübingen: Mohr Siebeck, 1998), 239.

14) ἀκοῆς의 의미상으로 ‘들음’이라는 뜻 외에도 ‘선포 또는 설교’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참고: G. Schneider, *Ex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 (Stuttgart; Berlin; Köln: Kohlhammer, 1992), 117; W.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59). 그래서 어떤 외국어 성서 번역들(EIN, ELB, LUO)은 ‘선포와 설교’로, 또 어떤 번역본들(ESV, KJV, NAS, RSV)은 ‘듣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 성서 번역본들은 의미상으로 단지 ‘듣는 것’만을 취하고 있어서 다른 한 쪽의 번역 가능성을 차 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15) H. D. Betz, *Der Galaterbrief* (München: Kaiser Verlag, 1988), 243.

‘분리’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관계가 되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3:11이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바울의 주장임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문맥에서 본문을 해석 및 번역해야 할 것이다.<sup>17)</sup>

### 3. 나오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11하반에 등장하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라 말할 수 있는 전치사구 ἐκ πίστεως의 문법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 표현은 문법적 의미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적 조명하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바울은 여기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전에 전했던 복음을 뒤로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즉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앞서 그가 갈라디아서 2:11이하부터 계속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출처) 의로워지는 것이다(δικαιωθῶμεν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 καὶ οὐκ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2:16, 21). 또한 의인이 믿음으로부터 난 것이지, ‘율법이 믿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ὁ δὲ νόμος οὐκ ἔστιν ἐκ πίστεως 3:12a).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이러한 바울의 신학적 문맥에서 읽혀져야 하고 번역되어져야 한다. 기존의 많은 성서들이 번역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한 번역이라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바울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번역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갈라디아서 3:11하반의 ὁ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는 ‘믿음으로부터 난 의인은 살 것이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투고 일자: 2012. 10. 10.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

16) J.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London: Hendrickson Publishers, 1995), 174.

17) I. C. Levy, *The Letter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2011), 96.